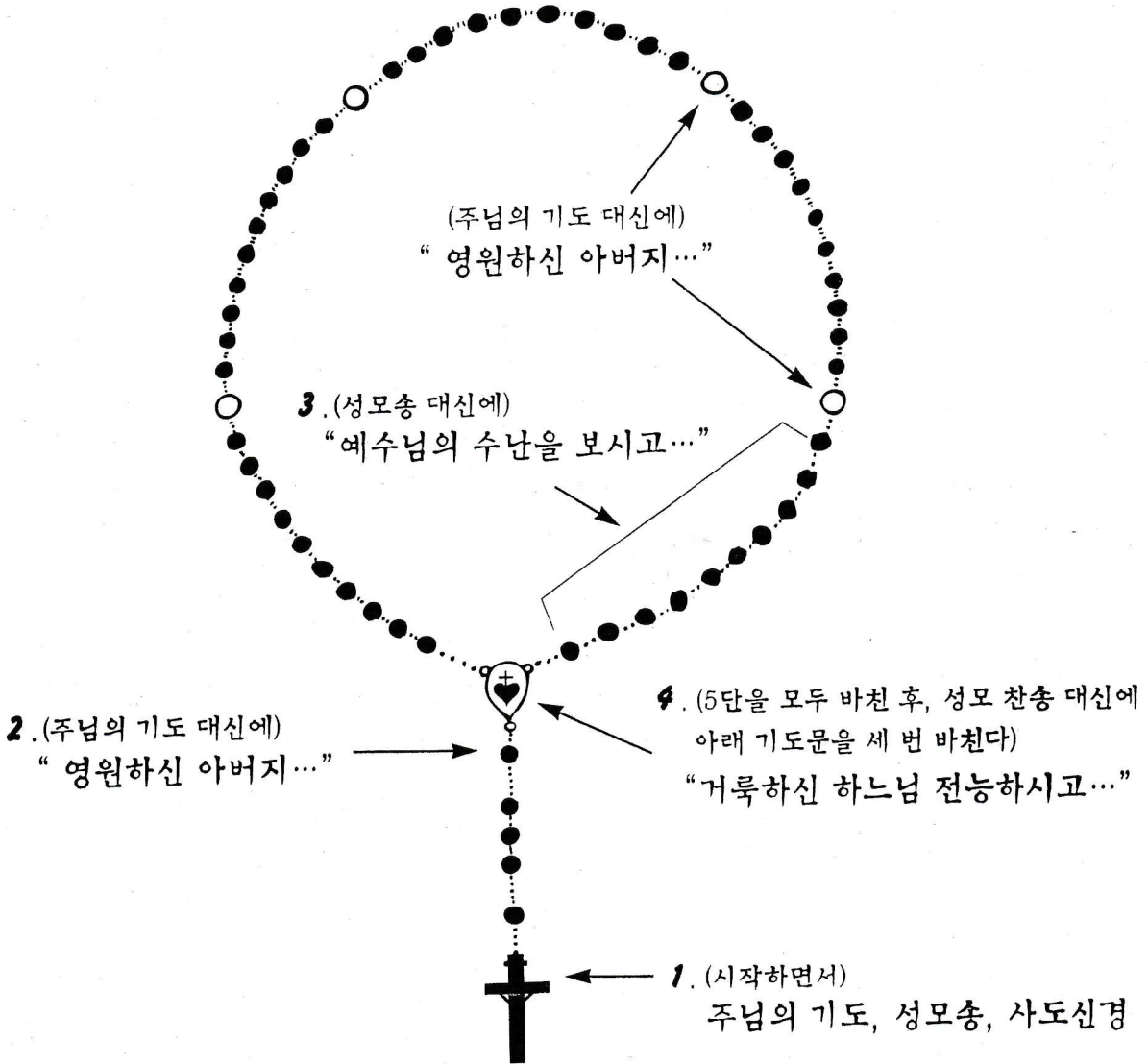


#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 방법

(묵주를 사용하여 5단 기도를 바친다)



1.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을 한 번씩 바친다.
2. (매단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다음 기도문을 바친다.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3. (매단마다) 성모송 대신에 다음 기도문을 바친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4. 5단을 모두 바친 후, 성모 찬송 대신에 다음 기도문을 세 번 바친다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세 번 반복)

##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

“세상에 크고도 심오한 나의 자비를 선포하여라! 나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켜라. 심판관으로 오기에 앞서, 온 세상에 나의 자비의 문을 열어 주리라! 심판의 날이 오기전에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때에 하늘로부터 십자가 표시가 나타날 것이며, 내 손과 발의 상처마다 빛 줄기가 뿜어져 나와 잠시동안 이 땅을 비출 것이다.”

“나의 자비의 사도가 되려고 애쓰는 사제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이 말에 거역할수 없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고 그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리라”

“영혼 하나가 나의 선함을 찬미할 때 사탄은 무서워 떨며 지옥으로 도망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샘으로 와서 은총을 퍼 담을 그릇을 준다. 그 그릇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글에 쓰여진 성화이다”

“이 성화를 공경하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가정은 물론 도시들도 이 성화를 공경하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깊은 믿음으로 내 자비에 의지하는 한, 인류는 안전과 평화를 찾을 것이다.”

# “나는 부활 후 첫 주일을 자비의 축일로 지내기를 바란다. 이 자비심 축일은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와 쉼터가 될 것이다. 자비심은 하느님의 가장 큰 특권이 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자비의 축일에 내 자비의 바다가 열릴 것이며 내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바다와 같은 은혜를 내릴 것이다. 내 자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자비의 축일은 온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왔다. 이날 생명의 샘에 오는 자는 죄를 완전히 용서 받고 벌을 면제 받을 것이다. 이날 하느님의 모든 은총의 수문이 열리리라. 자신의 죄가 진홍 빛처럼 붉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 “이 크나큰 선물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 즉 하느님을 신뢰하고, 자비를 행하고, 고백성사를 받아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고 생명의 샘, 즉 성찬례에 참석하여 영성체를 해야 한다.”

“자비의 축일을 위한 준비로 9일 기도를 바쳐라. 성금요일에 시작하여 9일 동안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묵주를 이용한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쳐라. 이 9일 동안 나는 영혼들에게 모든 은총을 분배할 것이다.”

스위스 가톨릭 잡지 (SKS) 에서